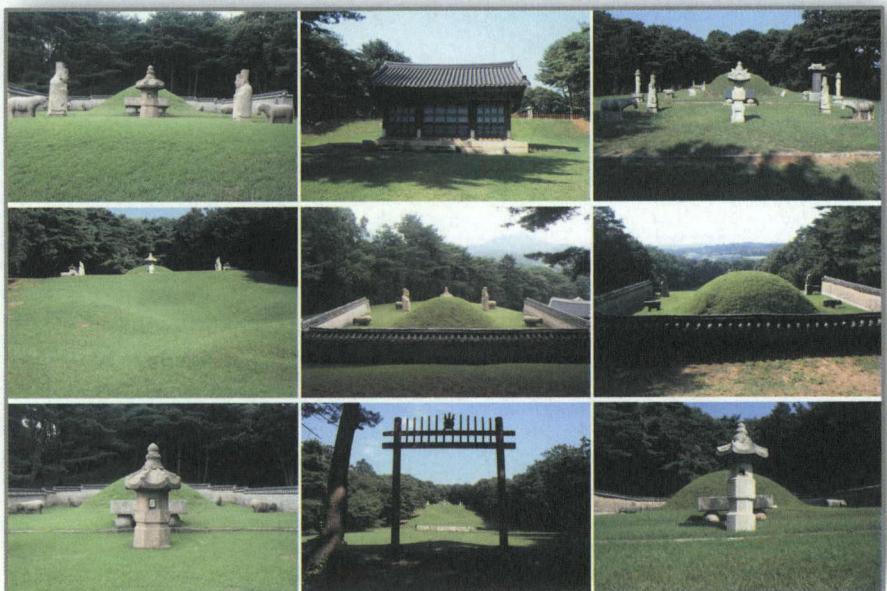


1. 원

고양시



순창원(順昌園)

1. 연혁

원 주 : 순회세자(順懷世子)와 공회빈(恭懷嬪) 윤씨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8호

봉원연대 : 1563년(명종 18)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을 지나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으로 접어들면 바로 오른쪽에 해발 235m의 용봉 산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서오릉에 도착하게 된다.

원래 서오릉은 ‘서쪽에 다섯 개의 능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오릉에는 5릉(경릉 · 창릉 · 익릉 · 명릉 · 홍릉), 2원(순창원 · 수경원), 1묘(대빈묘)가



멀리서 본 순창원

있어서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실의 가족묘를 이루고 있다. 경릉은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인수대비), 창릉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다. 또 순창원에는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와 그의 부인 윤씨가, 수경원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영빈 이씨가, 대빈묘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묻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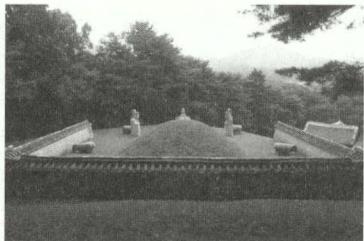
순창원은 조선왕조 제13대 명종의 원자 순회세자와 공회빈 윤씨의 능이다. 의경세자(懿敬世子, 추존 덕종)와 그의 비 소혜왕후 한씨의 능인 경릉가는 길쪽에 위치하고 있다. 순회세자는 명종의 제1자로 명종 1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3세에 세상을 떠났다. 공회빈 윤씨는 윤옥의 딸로서 선조 25년 3월 3일 세상을 떠났다.

홍살문 뒤로 짧고 좁은 참도가 남향의 정자각까지 이어진다. 정자각은 단청을 하지 않아 그야말로 고색창연(古色蒼然)하다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묘소는 정자각과 일직선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45° 정도 동남 방향으로 비스듬히 틀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형상 산줄기의 흐름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정자각을 기준으로 쳐진 울타



순창원의 참도와 정자각



리 때문에 밑에서는 봉분이 보이지 않고 곡장과 장명등의 윗부분, 문인석 1쌍과 석마만 보일 뿐이다. 아래에서 올려다 보이는 문인석은 그 표정이 아주 온화하다.

홍살문을 지나 참도를 따라가면 정자각 뒤에서 본 순창원 봉분과 석상이 보이고, 정자각 뒤로 곡장을 두른 봉분이 보인다. 봉분은 단묘로 이루어져 있고, 봉분 주위에 양과 호랑이가 한쌍씩 에워싸고 있다. 그 앞에 상석과 장명등이 있고, 문인석 한쌍과 석마 한쌍이 있다. 망주석은 없다.

3. 원주 소개

순창원은 조선 13대 명종의 큰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 1551~1563)와 그의 빙 공회빈(恭懷嬪, ?~1592) 윤씨의 능이다. 순회세자는 7세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황대임의 딸과 혼담이 오갔으나 그녀가 병약하여 1년 넘게 가례를 미루자 1559년(명종 14) 윤옥의 딸로 세자빈이 교체되어 가례를 올렸다, 그러나 순회세자는 가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사도 잇지 못한 채 1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시호는 순회(順懷)이며, 1603년(선조 36)에야 비로소 신주(神主)가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명종의 대를 이어 중종의 손자 하성군(선조)이 대통을 이었다.



공회빈 윤씨는 호군(護軍) 윤옥(尹玉)의

가까이에서 본 순창원의 모습



장명등과 혼유석

딸로 1559년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1592년 (선조 25) 3월 3일 승하했다. 원래 순회세자는 9살인 1559년에 장가를 들었는데, 처음에 세자빈으로 간택된 황태임의 딸이 맹장염으로 추정되는 심한 복통 때문에 그녀를 양제(세자의 후궁에게 내리는 종2

품의 품계)로 삼고 윤옥의 딸을 다시 뽑아 가례를 올리니 그녀가 바로 공회빈 윤씨이다.

그러나 순회세자는 몸이 약하여 13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 그 바람에 공회빈은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고 30여 년 후인 159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살아서도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는데 죽은 후에도 불행했다. 그녀가 죽던 무렵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선조는 의주로 봉진을 떠나기 직전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궁궐 후원에 임시로 가매장했다. 그리고 한성 탈환 후 돌아와 보니 가매장한 무덤은 파헤쳐져 흔적도 없었고 시신 또한 사라지고 없었다. 선조는 사람을 풀어 후원을 모두 파헤치며 시신 발굴에 나섰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선조는 시신없이 신주만 모셨는데,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신주마저 잊어버렸으니 죽어서도 불행한 여인이 아닐 수 없다.

4. 즐기 및 애책문

《燃藜室記述》 卷11, 明宗朝故事本末 順懷世子

순회세자가 여섯 살이 되니, 어릴 때 교육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조정의 학행 있는 이를 뽑아 보양관(輔養官)이라 일컫고 수시로 접촉하게 하니, 안현(安玹)·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임호신(任虎臣)이 뽑히었다. 『동각 잡기』

○ 18년 계해년(1563)에 순회세자가 졸하였다.

과거에 임금이 어려서 정권이 대비에게 있고 간신이 국정을 마음대로 하니, 을사년의 옥사는 임금이 아는 바가 아니었다. 세자가 죽자 임금이 매우 애통하다가, 얼마 뒤에 “내 울어 무엇하랴. 을사년에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들이 죄 없이 폐죽음을 하였는데도 내가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말리지 못하였으니, 우리 집안이 어떻게 대대로 군왕이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훌륭하도록 임금의 말씀이여. 후세의 신하를 올릴 만하다. 『부계기문』

○ 선조 임진년에 공회빈(恭懷嬪) 윤씨가 창경궁 통명전에서 졸하였다. 세자의 무덤에 부장하려고 날을 정하였으나, 난리로 파천하게 되어 마침내 후원에 임시로 매장하였다. 이듬해 환도하여 보니 이미 파헤쳐 없어져서 끝내 찾지 못하였다. 『공사견문(公私見聞)』

○ 과거에 순회세자의 가례(嘉禮)를 행하게 되었을 때, 윤원형(尹元衡)이 그 사위 안대덕(安大德)의 가까운 친척 황대임(黃大任)의 딸을 점쟁이와 짜고 오주(五柱)를 고쳐 만들어 가장 길하다 하고 올렸다. 혼례 기일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대임의 딸이 갑자기 복통으로 매우 앓으므로, 임금이, “병자를 동궁에 찍할 수 없고 또 다른 데로 출가시키기도 어렵다.” 하고, 강등하여 양제(良娣 세자궁의 궁녀의 직함의 하나)로 삼았더니, 조금 있다 죽었다. 윤옥(尹玉)의 딸을 다시 뽑아 가례를 행하였는데, 이듬해에 순회세자가 요절하고, 임진년에 윤빈이 죽었다.

신축년 선조가 전교하기를, “공회빈 일은 내가 차마 말을 할 수 없다. 사변

으로 인하여 국가가 황망하여, 아직 신주를 세우지 못하였고, 순회세자 또한 신주가 없으니, 내 이를 생각하면 말할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 유사(有司)에 명하여 신주를 세우라.” 하였다. 《문헌비고》

○ 순회묘(順懷廟)가 도성 안 북쪽에 있어서 순회세자와 공회 윤빈을 모셨더니, 인조 병자란에 신주가 없어져서 정축년에 다시 만들었다.

《宣祖修正實錄》 卷26, 宣祖 25年 3月 3日 甲子 <卒記>

順懷世子嬪尹氏卒 尹氏 參判珏之女 十歲應選 冊封德嬪 翌年世子卒
仁順王后遺命勿令出宮 上且未建儲嬪 仍處東宮 上待遇盡誠, 諸妃嬪皆從
受學 嬪性至貞潔 自世子喪後 終身常如宅憂 絶不許親戚出入宮禁 爲祈
祝先靈 頗從事供佛 上憐之不禁 至是 卒 謚曰恭懷 將附葬世子園 工役
大興 值倭變卒急 未及葬 而上出幸 侍殯官吏若干人 欲權口後苑 而梓室
重 不能移運 俄而宮殿火起 宮吏皆散矣 宮人追慕悲慟以爲 嬪生時 崇尚
釋典 邂逅火葬 亦合先旨 云

소경원(昭慶園)

1. 연혁

원 주 : 소현세자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정번호 : 사적 2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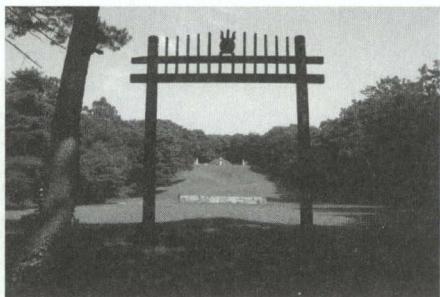
봉원연대 : 1645년(인조 23)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통일로를 달려가다 보면 고양시 삼송동 4거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농협대학 입구 삼거리에 이른다. 농협대학 안내 표지판과 함께 써있는 서삼릉 표시를 따라 달려가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멋들어진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을 지나면 서삼릉 입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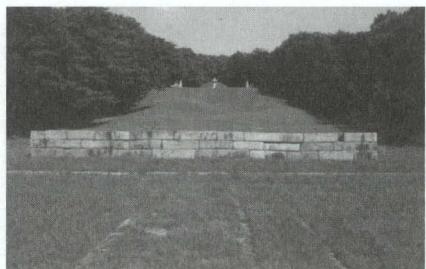


소경원 전경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이곳에 있다. 이 능역에는 이외에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 장조의 아들 의소세손의 의령원(懿寧園),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효창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의 무덤인 소경원은 서삼릉에 있는 묘소들 중에서 가장 후미지고 외떨어진 장소에 있다. 특히 소경원 바로 옆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어렵다.

현재 소경원에는 홍살문은 있지만 정자각은 파손되어 그 터만 남아 있다. 봉분 주위에는 곡장을 둘러쳤고, 석호와 석양이 주위를 지키고 서있다. 혼유석과 장명등, 그리고 문인석 한쌍, 석마 한쌍이 소경원을 외로이 지키고 있을 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매우 한적하기까지 하다. 다만 양지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어지고 있는 점은 그나마다행이라 하겠다. 처음에는 소현묘라 했으나 고종 때 소경원(昭慶園)으로 격상되었다.



소경원 원경(앞에 보이는 단은 정자각터)

3. 원주 소개

소경원의 주인인 소현세자
[1612(광해군 4)~1645(인조 23)]
는 인조의 맏아들로 이름은 왕
이다.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한
준겸(韓浚謙)의 딸 인열황후(仁
烈王后)이다. 빈(嬪)은 우의정 강
석기(姜碩期)의 딸 민희빈(愍懷
嬪)이다.

1625년에 세자에 책봉되고,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전주로 내려가 남도
의 민심을 수습했으며, 그 해에 참의(參議) 강석기(姜碩期)의 딸 민희빈(愍懷
嬪)과 혼인하였다.

이원익(李元翼)·장유(張維) 등을 빈사(賓師: 세자시강원의 1품관)로 맞아
왕자의 덕을 닦았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옮겨 청나라에 항전하려
했으나, 청군의 빠른 남하로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다가,
중과부적으로 삼전도(三田渡)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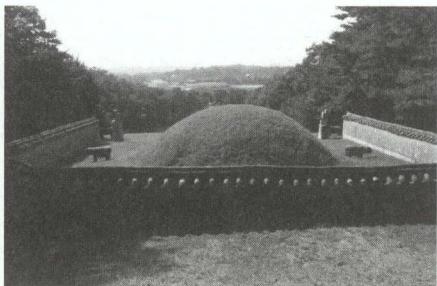


소경원 장명등과 봉분



소경원 전경

그 뒤 자진하여 봉림대군(鳳林大君)
및 주전파 재신(宰臣)들과 같이 인질로
심양(瀋陽)에 갔다. 심양에 9년 동안 있
으면서 1642년 3월과 1644년 정월에
두 차례 본국을 다녀가기도 하였다. 심
양에서의 그는 단순한 질자(質子)가 아
니라 대사(大使) 이상의 외교관 소임을



뒤에서 바라본 소경원 전경

하였다.

즉,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무리한 물자를 요구하면 그를 막으려 노력도 하였다. 청나라는 조선과의 일을 인조가 병증이라서 담판할 수 없다 하여 세자의 재량으로 처리하도록 강요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자는 본국에서는 무력한 존재이나, 심양관에서는 조청(朝清) 양국간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때문에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격이 되었다. 그는 현실적으로 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청의 왕족 및 장군들과 친교를 맺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노력하였다.

1644년 9월에 북경(北京)에 들어가 70여 일을 머물면서 서양인이 주관하고 있던 천문대를 찾아가 역법(曆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인 신부 아담 샬(Schall J.A., 일명 湯若望)과의 친교로 천문 · 수학 · 천주교 서적과 여지구(輿地球) · 천주상(天主像)을 전래하는 등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조정은 서인들의 집권과 함께 반청친명정책(反清親明政策)을 고수, 소현세자의 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

특히, 소현세자는 300명이 넘는 시강원 관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청의 요구를 막지 못하고 그들과 영합하면서 막대한 경비만을 국고에 부담지웠다. 또 때로는 사무역(私貿易)을 자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행위로 인조에게 친청적인 인물로 보였으며, 후계자로서 부적격하다고 간주된 듯하다.

게다가 인조의 총비 조소용(趙昭容)은 세자빈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세자를 백방으로 모함, 심양관에서 세자의 과도한 영리 추구는 잠도역위(潛圖易位 : 세자가 인조를 대신해 왕위에 오르기 위한 공작) 또는 세자를 대신하여 인조를 청에 입조시키려는 공작이라고 모함하였다.

그리하여 인조는 심양관에 밀정을 보내 세자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세자는 9년 간의 인질생활 끝에 1645년 2월 18일에 입경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환영보다는 냉대였으며, 세자에 대한 군신의 진하(進賀)도 못하게 막아버렸다. 세자 일행이 북경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에 관한 서적과 물자도 인조의 노여움을 가중시켰다.

그는 뜻하지 않은 부왕과의 갈등으로 그 해 4월 23일 병석에 눕게 되고 4 일 만인 26일에 급서하였다. 이와 같은 세자의 급서는 의관 이형익(李馨益)의 책임이라 하여 엄벌을 요구하였다. 이형익은 조소용의 외가와 관련된 인물로 3개월 전에 특채된 의관이었다.

인조는 세자의 사인을 규명하려 하지 않고 관례적인 책임도 지우지 않은 가운데 입회인을 제한하여 입관을 서둘렀다. 《인조실록》에는 시신은 9월에서 출혈하고 있었으며 진한 흑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여 은연 중에 독살되었음을 시사하고 그 하수인으로 이형익을 지목하고 있는 느낌을 주게 한다.

그 뒤 세자빈이 역모를 꾸몄다 하여 민회빈은 물론 두 아들과 그의 친정식구, 그리고 세자빈과 친했던 많은 궁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세자를 죽인 장본인은 바로 인조일 가능성이 높다.

사후 소현(昭顯)으로 증시(贈諡)되었으며, 이식(李植)이 그의 묘지(墓誌)를 썼다.

4. 소경원지

李植, 『澤堂先生別集』 卷6, 昭顯世子墓誌

上之十五年 有南漢之厄 王世子入質于清國 越九年乙酉二月 始獲返國
越四月戊寅 王世子有疾遽劇 卒于昌慶宮之歡慶殿 上在違豫中 親莅喪制
嗚呼 天運之戾 一至於斯 上下之慟 寧有既乎 擇卜越六月十五日丙寅 桤
室發引 十九日庚午 葬于孝陵右洞坐乙向辛之原 命臣植爲之誌 臣謹按世
子諱某 萬曆壬子正月四日己亥 誕生于會賢坊之潛宮 幼而岐嶷穎異 上之
登寶位也 首選耆儒五臣 教訓備至 乙丑正月 禮加元服 策命爲王世子 丁
卯之變 車駕將幸江都 先命世子分朝 鎮撫南服 大臣李元翼, 申欽等輔之
行駐全州 開撫軍司 月餘兵罷 入覲江都 扈從還京 是年十月 行入學禮
十二月 聘參議姜碩期女 封嬪親迎如禮 甲戌六月 皇朝因奏請 頒降策封
誥命 幷賜冕服彩段 大監盧維寧來宣 世子迎送享禮如儀 乙亥冬 仁烈王
后升遐 秉禮宅憂猝值丙子之變 從幸山城 丁丑 西行入瀋 明年 請歸國
行大祥祭而不得 庚辰春 始得請歸觀 甲申春 復歸觀 皆不得久留 是秋
轉入燕京 清國已定河北 卽促世子輟還 嬪御及諸公卿質子大歸 上告廟頒
赦 國人相慶 世子久留異域 數從軍旅 東獵朔荒 西穿燕塞 跋履山川 備
經危險 雖神氣自若 而內受勞傷 還宮以後 連有寒熱之感 醫方錯誤 竟至
不祿 嗚呼痛哉 世子壽三十四 嬪宮舉三男四女 元孫某 方就傳受學 餘竝
幼 世子資性孝友 識度英毅 沖年撫軍 已自令旨指揮 一從大朝命戒 節損
供御 厥飭陪從 專務省弊裕民 申令州縣 母失東作 路見藁草覆溝 令曰
此以飼馬 軍興之時 切勿屑用 又廚禁牛肉 酥酪亦不許供 戒以勿殺耕牛
從臣請乘駕轎 不許 中途復請 則曰 今明日 乃大駕去邠日也 安敢坐乘
終不許 兩道帥臣 分三邑兵數千 以備護衛 世子曰 吾避敵南下 安用軍衆

可速入援京師 及次全州 西報又急 大臣議轉向嶺海 世子又不肯 湖南幾撓而復定 旋駕之日 南民父老男女 沿途頌祝 至今稱之 上之初駐山城 群臣請亟出如丁卯故事 世子哭泣 不欲違難遠離 既而清將 脅我以世子爲質 城中盡駭 三司力爭以爲決不可從 上亦不忍也 世子卽自請曰 苛安社稷而保君父 則臣何憚行 及被拘而西也 大君偕行 同館以處 怡愉日篤 諸從者一無間言 寧錦之役 見迫從軍 而世子會有微疾 從臣圖代以大君 及當再行 世子憫大君獨勞 誒以他故 而堅請自行 適以軍門之令 止之而止 時和好初定 事釁多端 殊方重譯 謠巧百端 世子處於兩間 不憚不忤 蹤難如夷 接應彌縫 舉無失辭 諸王群帥 久益歡洽 終不敢加以無禮 世子坦懷待物 絶去邊幅 待遇宮臣 一以和厚 諸有疾病困厄者 必周恤拯濟 盡力乃已 文學鄭雷卿在館 挑禍不測 世子冒危伸救 卒不得 則握手泣訣 哀動左右 襲斂諸具 皆自內備 聞者莫不感聳 常時尊敬師傅 聞其逝歿 必舉哀臨弔 雖已去職 特念舊恩 斷以己意而行之 此前所未有之舉也 上用廷臣議 取明德有勞行見中外之義 贈謚曰昭顯 吁其至矣 臣謹就耳目所聆睹 而志其大者如右 其他如春防所記禮儀之節 辭令之文 書筵講問 行館舉措 非係德行之本者 不能盡著 謹誌

5. 소현세자시책문

李植, 《澤堂先生別集》卷1, 冊文 昭顯世子謚冊文

天降大戾 遽遭繼體之喪 國有彝章 宜備崇終之禮 勉循公議 少酬至情
惟爾世子某 孝友因心 英明挺質 詩書就傳 早膺儲貳之尊 監撫分朝 普慰
軍民之望 豈料魯難之滋甚 而致秦質之久淹 星霜九年 稜續音問 水陸萬

里 備經艱關 尚賴中孚之感人 終獲前曜之返國 承華再闢 率土交懼 將謂否泰回環 大開宗社之慶 亦知拂亂增益 不恢付託之圖 噫予負何罪辜 倩爾罹此夭札 殆由勞瘁而成瘵 豈徒鍼藥之乖方 父子相逢 曾未數月 幽明永隔 奄及一朝 技血拊心 忘疾疹之在己 殷憂永念 若夢寐之非真 爰思表德而流光 要在易名而詒後 茲遣某官某 捧冊贈謚曰昭顯 於戲 重哀不暇虛飾 嘉典不容溢辭 儀形已亡 雖莫追於泉壤 行迹可紀 尚有徵於簡編 庶幾精靈 欽此寵命

6. 소현세자애책문

《潛谷先生遺稿》卷10, 冊文 昭顯世子哀冊文 乙酉

維歲次乙酉四月癸丑朔二十六日戊寅 昭顯世子卒于昌慶宮之歡慶殿 六月壬子朔十九日庚午 將遷于高陽孝陵之後岡 禮也 銅龍曉闢 鐵鳳高騫
輦車整駕 廉翫前翫 遵幽坎之寂居 謂明离之胄筵 都民灑淚而頓地 且僚泣血以呼天 我聖上以止慈之情 抱無涯之戚 哀朝出而不返 悲夜臺之永隔
日三朝兮何時 夢九齡之難得 爰降綸於金門 倩傳徽於寶冊 其詞曰
猗歟聖朝 奕業重光 本支百世 神孫繼昌 惟我青宮 穀質純剛 早正位號
騰頌元良 波澄少海 彩增前星 心存典學 志在橫經 遭時不幸 百六斯丁
搶攘爲患 及於近坰 湖海分飛 兩宮行色 仁聲入人 在處涵澤 父老扶杖
延頸拭目 還于大都 離亂消息 如何慘禍 十年復作 國步斯頻 邦域一燭
危於綴旒 我是用急 挺身請行 幄後揮泣 苟紓其難 遑恤乎他 氈車言邁
萬里風沙 割慈忍愛 酸鼻驚骨 載馳載驅 不日不月 氷塞龍河 雪漫狼山
逾越險阻 備嘗艱難 逮乎留館 困甚邯鄲 馬不生角 鷄未鳴關 陟岵吞聲

念切回腸 秦聲越吟 奚獨思鄉 從于射獵 出入戎行 酷暑嚴寒 寧不致傷
方重歡於會合 庶萬年之和樂 忽一疾之無妄 遷徂芳於嗣德 嘴呼哀哉 物
極必反 不終則泰 信天道之當然 豈斯理之或悖 謂此後之能享 已盡殄乎
災厄 曾日月之幾何 降禍變之斯酷 嘴呼哀哉 日晏龍樓 風悲鳳殿 禮絕問
寢 誰爲視膳 幸元孫之岐嶷 欣匕鬯之有托 繫億兆之願望 知國祚之綿歷
慘欒欒之孺慕 增至尊之悲怛 嘴呼哀哉 書帷寂寞 講席淒涼 蟠瀛鳴窓 烏
衣語樑 塵牙籤之萬軸 消寶篆之清香 餘舊日之老璫 對宮官而涕滂 嘴呼
哀哉 日月有期 佳城載卜 龍盤虎踞 富媯儲福 百靈來朝 三方拱揖 依喬
陵之神隧 又蒼蒼兮松柏 仁祖在南 聖母在北 想英靈之相望 宛怡愉於平
昔 嘴呼哀哉 彭殤不齊 萬古若一 固定數之無改 雖大德其難必 惟其勞勸
而促算 恨與天地而罔極 紀遺蹟而揄揚 永垂休於窀穸 嘴呼哀哉

여

백

수경원(綏慶園)

1. 연혁

원 주 : 장조 사친 영빈(映嬪) 이씨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지정번호 : 사적 제198호

봉원연대 : 1764년(영조 40)

전원연대 : 1970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을 지나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으로 접어들면 바로 오른쪽에 해발 235m의 웅봉 산자락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아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서오릉에 도착하게 된다.

원래 서오릉은 ‘서쪽에 다섯 개의 능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오릉에는 5릉(경릉 · 창릉 · 익릉 · 명릉 · 홍릉), 2원(순창원 · 수경원), 1묘(대빈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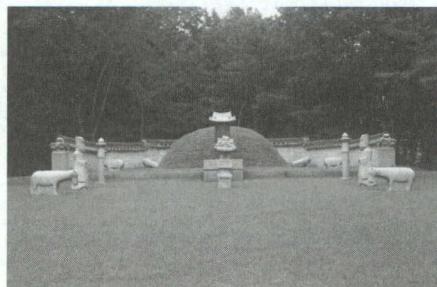


수경원 신도비

있어서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실의 가족묘를 이루고 있다. 경릉은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인수대비), 창릉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다. 또 순창원에는 명종의 맏아들 순희세자와 그의 부인 윤씨가, 수경원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영빈 이씨가, 대빈묘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묻혀 있다.

수경원은 영조 후궁 선희궁(宣禧宮) 영빈(暎嬪) 이씨(李氏)의 묘소이다. 처음에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대 후편에 묘소를 정하고 의열묘(義烈墓)라 하였다가, 정조가 즉위하여 선희묘(宣禧墓)라 고쳤으며, 광무 3년(1899)에 영빈 이씨의 시호를 소유(昭裕)라 추증하고 묘소 또한 수경원으로 추봉하였다. 서오릉 경내로 옮겨진 것은 1970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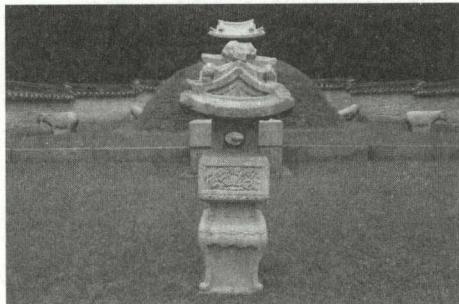
수경원은 낮은 언덕 위에 아담하게 꾸며져 있다. 봉분 뒤로 곡장을 두르고, 혼유석과 ‘영빈전의이씨지묘(暎嬪全義李氏之墓)’라 새겨 있을 뿐인 묘 중앙의 묘비, 뚜껑돌의 장식이 무거워 보이는 장명등, 그리고 키 작은 문인석 1쌍과 석마가 서 있을 뿐이다. 망주석은 새로 세운 듯 보인다. 묘 주위의 조용함이 아들 사도세자의 비운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미로서의 영빈을 쓸쓸하게 떠올리게 한다.



수경원 봉분 전경

3. 원주 소개

영조의 후궁인 영빈이씨[1696(숙종 22)~1764(영조 40)]는 조선 제21대 영조의 후궁이며, 사도세자(思悼世子 : 莊獻世子)의 생모이다. 어려서 궁중에 들어가 귀인(貴人)이 되었으며, 1730년(영조 6) 영빈으로 봉해졌다.



수경원 봉분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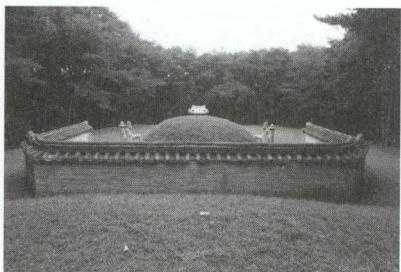
영조의 깊은 총애를 받았으며, 4명의 옹주를 낳은 뒤 1735년 원자를 출산하여 후사(後嗣)를 기다리던 영조를 크게 기쁘게 하였다.

1762년 사도세자가 폐위당하는 와중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고, 1764년에 죽자 영조는 매우 애통해하면서 후궁 제일의 예(禮)로 장례하게 하였고, 이듬해 시호로 의열(義烈)을 추증하면서 친히 선시지례(宣謚之禮)를 행하기도 하였다. 소생으로 사도세자 외에 5명의 옹주가 있었다.



수경원 묘비석과 봉분

한편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신주를 봉안한 묘사(廟祠)인 선희궁(宣禧宮)이 있어 영빈이씨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宮井洞) 육상궁(毓祥宮) 내에 있었던 왕실의 사묘(私廟)인 선희궁은 1764년(영조 40)에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생모인 영빈이씨(暎嬪李氏)의 신주를 봉안한 묘사(廟祠)이다.



뒤에서 바라본 수경원

왕실의 사묘란 조선 시대 정실왕비(正室王妃)가 아닌 후궁에게서 태어난 임금이 그의 어머니의 신위(神位)를 모신 곳이다. 1764년에 영빈이씨가 사망하자 시호를 의열(義烈)이라 추증하고, 묘의 이름을 의열묘(義烈廟)라고 하였다가 1788년(정조 12)에 선희궁으로 고

쳐 격을 높였다.

원래는 한성의 북부 순화방(順化坊 : 현재 종로구 신교동 부근)에 있었는데, 1870년(고종 7)에 신주를 육상궁으로 옮겨 모셨다가 1896년 선희궁으로 되돌려 모셨고, 1908년에 다시 육상궁에 옮겨 모셨으며, 그 옛 터에는 건물의 일부가 남아 있다.

전하는 바로는 영친왕이 태중(胎中)에 있을 때 순헌엄귀비(淳獻嚴貴妃)의 꿈에 영빈이씨가 나타나서 폐(廢)한 사당을 다시 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는데 그뒤 영친왕을 낳고 나서 꿈을 꾸었던 일을 고종에게 말하여 제자리에 사당을 새로 지어서 다시 신주를 받들었다고 하나, 1908년에 신주를 다시 육상궁으로 옮겨 받들었다.

4. 영빈이씨 즐기 및 관련 기록

《英祖實錄》卷104, 英祖 40年 7月 26日(丙子)

嘆嬪李氏 捐逝 上臨哭之甚哀 命以後庭一等禮葬之 惠嬪宮 依儀禮經傳 庶子爲父後者 爲其母服總之文 服以總服 嘆嬪 誕生 思悼世子 在後

庭四十餘年 謹慎沈默 而處不幸之時 有保護之功焉

《英祖實錄》卷106, 英祖 41年 7月 11日(甲申)

上詢于大臣禮堂 特贈 嫠嬪李氏 謚 義烈 親製教書祭文 駕臨于本宮
行宣謚之禮 惠嬪 宮王世孫 亦隨詣 夕還宮

《承政院日記》高宗 36年(光武 3年)8月 10일(양력 9월 14일)

○ 의정부 의정 윤용선(尹容善)이 삼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칙지를 받들어 영빈(嫗嬪)의 시호(謚號)와 원호(園號)를 의
정(議定)하여 들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영빈의 시호망(謚號望)은 소유(昭裕) - 덕이 밝고 공로가 있는 것이 ‘소
(昭)’이고, 배우기에 힘쓰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이 ‘유(裕)’이다. - 였는데 삼
가 그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고, 원호망(園號望)은 수경(綏慶)이었는데
삼가 그대로 하라는 칙지를 받들었다.

여

백

의령원(懿寧園)

1. 연혁

원 주 : 장조 장남 의소세손(懿昭世孫)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2호

봉원연대 : 1752년(영조 28)

전원연대 : 1949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통일로를 달려가다 보면 고양시 삼송동 4거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농협대학 입구 삼거리에 이른다. 농협대학 안내 표지판과 함께 써있는 서삼릉 표시를 따라 달려가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멋들어진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을 지나면 서삼릉 입구이다.



의령원 전경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이곳에 있다. 이 능역에는 이외에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 장조의 아들 의소세손의 의령원(懿寧園),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효창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의령원은 조선 영조 때 왕세손에 책봉되었던 의소(懿昭)의 묘소이다. 의소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큰아들로 영조의 손자가 되며 정조의 형이다. 1750년(영조 26) 사도세자와 혜빈홍씨(惠嬪洪氏) 사이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그 해에 왕세손에 책봉되었으나 불과 3세 만에 죽었다.

영조는 세손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여 예절을 갖추어 묘소를 꾸미고 사당인 의소묘(懿昭廟)를 도성 내 영조가 왕에 오르기 전에 거처하던 창의궁(彰義宮)에 세워 절기에 따라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묘소는 도성 서쪽 안현(鞍峴)의 남쪽 기슭, 현재의 서대문구 북아현동 중앙여자고등학교 내에 세워져



의령원 묘비석



의령원 장명등과 봉분

의소묘로 불리다가 1871년(고종 8) 의령원으로 승격되었다. 그 뒤 1949년 서삼릉으로 이장되었다.

현재 묘소에는 표석(表石) · 장명등(長明燈) · 혼유석(魂遊石) · 망주석(望柱石, 1쌍)과 문인석(文人石) · 마석(馬石) · 호석(虎石) · 양석(羊石)이 각 2구씩 설치되어 있는데 규모나 장식은 모두 간소하다. 표석의 전면에 있는 큰 글씨와 음기(陰記 : 표석의 뒷면에 쓴 글씨)는 영조의 친필이다.

3. 원주 소개



측면에서 바라본 의령원 근경

의소세손(懿昭世孫, 1750~1752)은 조선 장조(莊祖, 사도세자)의 적장자이며, 현경왕후(혜경궁 홍씨) 소생이다. 이름은 정(琔)이다. 정조의 형이기도 하다. 동궁에서 태어났고, 곧 할아버지 영조에 의해 세손에 책봉되었으나, 1752년 3살의 어린 나이로 일찍 서거하였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1899년 장종(莊宗)으로 처음 추증되었을 때, 의소세자(懿昭世子)로 격상되었고, 곧 장종이 장조의황제로 다시 추증되자, 의소태자(懿昭太子)로 역시 격상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당시 영조 때의 호칭에 맞추어 의소세손으로 불린다.

능원은 의령원(懿寧園)이며, 조카인 문효세자의 묘소 효창원 앞에 자리하고 있다.

4. 졸기, 시책문 및 애책문

《英祖實錄》卷76, 英祖 28年 3月 4日(乙丑)

王世孫薨于通明殿 教曰 數朔之內 哭婦哭孫 此懷何喻 世孫以今三月初四日卯時薨逝 儀曹知悉

趙觀彬, 《悔軒集》卷16, 應製文 王世孫冊封竹冊文

王若曰 震邸毓長男之祥 肅迓稀慶 泰統定世孫之號 爰舉彝章 輿情胥欣 國勢彌固 咨爾元孫某 降茲異表 在厥初生 叶聖母企望之情 晚景是慰 符寧考誕彌之節 哲命斯徵 襁褓未離 外庭聞岐嶷之譽 福祿攸萃 上穹鍾仁厚之姿 恤嗣昔年 憶何晚於主鬯 抱孫今日 喜猶早於含飴 此實祖宗陰隲之休 亦惟國家罕觀之慶 積德所暨 瓜瓞綿百世之支 重統有歸 磐石肇萬年之業 念爾生之冲眇 不須位號之早加 顧予齡之衰遲 政合典禮之亟舉 茲乃稟承於慈旨 仍以詢決於僉謀 兹命爾爲王世孫 爾其副兩宮期 膽百神佑 在幼而仁孝天得 宜保赤子之心 及長而德學日將 可勉大人之道 爲父爲祖 精一之家法相傳 有子有孫 蕃昌之邦運方屆 幾何成長 隨問寢於龍樓 邇不賢明 賛延祚於鳳曆 而遠圖遵豫建之法 斯顯謨先蒙養之方 師傅僚屬之必親溫文 自學語始 阿保近習之母狎凝嚴 從在抱初 優有孩提之良知 謎無訓戒之明諭 故茲教示 想宜知悉

趙觀彬, 《悔軒集》卷16, 應製文 懿昭世孫謚冊文

王若曰 至情無殤 撫斑衣而齋慟 尊名有謚 揭寶冊而揚徽 紂典式循 遺蹟斯著 惟爾世孫 自予抱爾 謂天祚邦祥 光亘星辰之墟 適值肇降 異姿挺日月之表 矩在嫡傳 惟岐嶷溫文之容 自有帝王家貴象 若仁厚慈孝之性

莫非孩提年良知 逮夫小邸之定名 倍多哀境之慰意 氣質儼成德器 纔二三齡 聰明能辨隸書 餘六十字 長置寢殿之側 曠省輒悽 常侍膳牀之傍 臨餐必勸 至於厭巧美而喜樸厚 允矣稟儉約而基淳彫 愛篤撫嬰 惟幸列祖之有佑 期深託嗣 庶卜宗祧之無憂 胡彼天降甚酷之灾 伊吾孫罹早闕之禍 始謂例證之偶 劇治則自瘳 誰意異質之遽摧 奪之何速 既使生而又使夭 厥理難徵 雖在天而亦在人 此恨靡極 虛期在初之哲命 永孤貽後之翼謨 三殿抱違膝之哀 罇慰暮景 八域缺拭目之望 從見輿情 想形而悅覲朗眸 殯留虛閣 迹蹟而益攬哀涕 事載實編 苟非節惠而垂名 則何貴幽而播遠 懿是德性之內蘊 旣淑且純 昭乃法容之外彰 惟恭與美 博採公議 少酬予恫茲遣臣某 奉冊贈謚曰懿昭 襪祫罹災 縱未延於長筭 簡冊揚德 庶可徵於寸毫 只冀不昧之靈 尚欽非溢之諭 嘴呼哀哉

《英祖實錄》卷76，英祖 28年 5月 12日(壬申)

葬 懿昭世孫 前一日 代奠官行啓殯奠 參贊 洪象漢 跪白日 參贊 洪象漢 謹以吉辰啓櫕塗 繕工監官陞撤櫕塗 參贊以巾拂拭梓室 覆以棺衣 祖奠時至 行祖奠 亥時行遺奠 訖 讀哀冊官 韓光肇 詣冊案前 讀哀冊文曰 維歲次壬申三月初四日乙丑 懿昭世孫 卒于 昌慶宮之通明殿 越三月五月 辛酉朔十二日壬申 將遷于楊州 鞍峴之南麓 禮也 素帯初啓 丹旐載颺 工祝撤祖而紛泣 池綺戒途而長往 惟我主上殿下 悼孫星之遽淪 悲少邸之永閔 爰命詞臣 倾揚徽躅 其辭曰 天眷大東 篤生神孫 祥光耀霄 祿道祉繁 聰哲溫文 星眸日角 三殿奇愛 兩宮至樂 章幘受冊 接武少陽 甫及周歲 指對四方 辨字維幾 六十有九 曠省而涕 啓餐于手 玉音微聆 色聳喜騰 本然之孝 克邁 閔 曾 取樸厭華 尚質之德 宗祊磐泰 八域延拭 胡穹昊之窅漠 竟神理之多違 飈輪逝之難遏 渺眞遊之莫追 嘴呼哀哉 蘭蓀夙茂 麟

驕競頌 謨貽燕翼 權洽含弄 縱嬰疚而彌留 期勿藥而遄復 俞 技窮而罔效
奄沖齡之不淑 呴呼哀哉 雕檻兮淒淒 總帳兮寂寂 倏仰成陳 觸境增盡 想
朗音而在耳 緇岐姿而森目 恫無涯於重宸 紗衆湊之盈掬 呴呼哀哉! 有菀
新岡 密邇天闕 英靈不昧 晨夕朝謁 慰聖懷之哀傷 訖有間於幽顯 玄扃掩
而厚夜 象設儼而攢獻 呴呼哀哉! 今古丘原 脩短同歸 煌煌琬琰 千禩芳菲
寫至情於雲漢 淚字字而忍讀 唉! 令名之永終 庶不泯於汗竹 呴呼哀哉 詣
以冊還置於函 遂發輶 升梓室官以淺淡服進輶 攝翊禮以淺淡服跪 贊請陞
輿 以教命冊印謚冊印哀冊 各置於腰舉 香爐香盒置於香亭 魂帛函安於腰
舉 神主函置其後 攝翊禮進 當梓室前跪 贊請詣輶 內侍奉銘旌降階 參贊
以淺淡服 帥升梓室官及內侍 以輪輿奉梓室 降階 覆以素錦褚 攝翊禮跪
贊請陞輶 至外門外 攝翊禮跪 贊請陞輿 又跪贊請進發 魂帛輿腰輿羽葆
銘旌及翫以次陳列 承旨淺淡服 講書院衛從司官衰服步從 [至板塵屏門 乘
馬隨行]至 宗廟 前路 升士弛擔 攝翊禮跪 贊請進發 至 昌德宮 前路 亦
如之 至 崇禮門 外路祭所行路祭訖 百官奉辭 應陪從群官 以次陪從 至
墓所 奉安梓室於靈帳宮 行朝奠上食 行遷奠 參贊 洪象漢 跪 白啓櫨塗
攝翊禮跪 贊陞輿陞輶 至羨道南奉辭位 用轎轤 奉下梓室 參贊 洪象漢
帥升梓室官等 奉梓室 安於玄室大棺內北首 參贊率內侍 再整棺衣銘旌
令平正 都監提調率其屬 以黼翫黻翫畫翫 樹於梓室兩傍 鎮閉玄室 參贊
及持平 朴師訥 同監鎖 師訥 書其封日謹封 參贊覆土九錘 仍築灰以塞
又以哀冊 跪奠於退壙之西 以贈玉帛函 跪奠於哀冊之南 都監提調帥其屬
奉明器服玩等諸具 以次陳之 帥作工續以終事 下誌石 群官哭再拜奉辭
誌文曰 我世孫幼諱 昌興 此乃百日命名也 卽祚二十六年庚午八月二十七
日丑時 生於 昌慶宮之景春殿 生時紅光亘霄焉 卽 嫫宮 洪氏 誕生也 外
祖參判 凤漢 永安尉 玄孫也 翌年辛未五月十三日封世孫 以五章服 抱奉

行禮於 崇文堂 生已碩大 儼然若成人 及冊封 復命名曰 琨 處於同宮 歡慶殿 歲壬申三月初四日卯時 薨逝於 通明殿 得年纔三歲也 嘴呼 痛矣此我世孫生卒也 嘴呼 三歲幼兒 豈述行錄 而有謚焉有誌焉 其無行錄 何以徵焉 飲泣以記 心膽欲摧 既述始末 宜錄行誼 而嘴呼 予豈忍爲三歲孫一字夸大乎 只錄其概焉 自二歲冬臘 能識字 古人六歲始教方名 而纔周年已指四方而對其所 知字數 侍者記之 乃六十有九字 且指李字而又自指此謂我姓之意也 予有所食 來立案右 手開其蓋 昨冬因 孝純 喪 臨視者曠焉 若聞稱予 輒必飲涕 且聞子聲 雖遠且微 必聳聽而喜 是乃本然之孝也 凡兒性喜華美 而常取厚而質者 以此良知之孝 與其聰明 一疾彌留月餘 終至于難醫之境 明星之眼 開朗之音 何復見聞 嘴呼 痛矣 嘴呼 痛矣親製行錄 仍作誌文 幷與梓室上字 墓表前後面皆親書 [行錄藏於玄室 本廟 而誌文藏於魂遊石下] 凡諸儀物 必也減制 令後人爲我孫哀殤焉 四月十二日 賦謚 懿昭 五月十二日 葬于楊州 鞍峴 南麓已向原 時皇 明 崇禎紀元後三壬申暮春 爲我良知賢孫痛泣以識 俟閉玄室 題主官 洛豐君 枫陞詣卓前 先題陷中日 朝鮮國 王世孫諱 琨 神主 次題前面曰 懿昭世孫神主 訖 行立主奠 仍爲返虞 [並遵喪禮補編儀式] 封墓制度 前面高六尺三寸三分 後面高五尺七寸三分 左右高六尺二分 經十九尺 圓五十七尺 樹表石 前面書曰 朝鮮懿昭世孫之墓 御筆也 後面御製文曰 予卽阼二十六年庚午八月二十七日誕生 壬申三月初四日卒 噩 得年纔三歲 五月十二日葬于 楊州 鞍峴 南麓已向原 嘴呼 此我世孫生卒也 前面大字 後面陰記皆親書 凡諸儀物 減其數減其制 令後人爲我孫見墓而垂淚焉 上具無揚黑紗貼裏 乘輿出明政門 百官以當時青戎服 只佩劍侍衛如常儀 上到宣仁門前路 召宣傳官教曰 舉動之時 路邊禾穀易致蹂躪 觀光民人侍衛軍兵 勿令踐踏之意 持二令旗 分付禁衛營都監 各別申飭 至懿昭墓所 入幕次 改

具衰服哭臨 午時臨壙 見下梓室 又爲哭臨後 還大次 且墨紗戎服 乘輿出
齋宮外 命奪大司諫 趙載敏 告身 罷持平 朴師訥 職 前日 上下臨壙一哭
之教 諸承旨請對 上淳下嚴教 重推諸承旨及提稟中官 至以壅滯法駕 事
係軍律責之 而兩司未及請對 是日 上自墓所 將回鑾 大司諫 趙載敏 始
求對 上問之 載敏曰 親臨壙上 卽帝王家常禮之外 職在臺閣 何敢不言
上曰 只欲爲臺體而來耶 命補 機張 縣監 促令肅命 載敏 問承旨曰 “肅
單當親呈乎 上以爲慢蹇 命投畀於 機張 持平 朴師訥 前進 上以其立奏
而不伏 重推 師訥 纔發大諫二字 上以其被推而不爲引避 遲之 及上乘馬
師訥 未及戎服 以朝衣祇迎 命拿處 已而寢之 改命 載敏 奪告身三等 師
訥 罷職 遂還宮 領議政 金在魯 入言 中官若不稟承旨求對 則是上下阻
隔也 仍救 趙載敏 朴師訥 命竝敍用

효창원(孝昌園)

1. 연혁

원 주 : 정조 장남 문효세자(文孝世子)

위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정번호 : 사적 제202호

봉원연대 : 1786년(정조 10)

전원연대 : 1944년

원묘형태 : 단묘

2. 원묘 소개

서울에서 문산으로 가는 1번 국도를 따라 통일로를 달려가다 보면 고양시 삼송동 4거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356번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가면 농협대학 입구 삼거리에 이른다. 농협대학 안내 표지판과 함께 써있는 서삼릉 표시를 따라 달려가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등장했던 멋들어진 포플러나무 가로수길을 만나게 된다. 바로 이곳을 지나면 서삼릉 입구이다.



효창원 신도비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이곳에 있다. 이 능역에는 이외에 소현세자의 소경원(昭慶園), 장조의 아들 의소세손의 의령원(懿寧園),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효창원(孝昌園) 등 3원과 성종의 두 번째 부인인 폐비 윤씨의 묘인 회묘(懷墓)를 비롯해 조선 말기까지의 후궁·대군·군·공주·옹주 등 46묘(墓), 태실 54기(基)가 들어서 있다. 서삼릉은 조선 왕실의 묘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왕실의 집장묘가 된 셈이다.

효창원은 조선 제22대왕 정조의 원자인 문효세자(文孝世子)의 묘이다. 당시 경기도 고양군 율목동(栗木洞 :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효창공원내)에 위치하였으며, 1944년 10월 9일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서삼릉(西三陵) 경내로 이장되었다.

서삼릉 경내로 이장하기 전에는 효창원 안에 순조의 후궁인 숙의 박씨(淑儀朴氏)와 그의 소생인 영온옹주(永溫翁主)의 묘가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 성씨의 묘소와 함께 있었으나, 지금은 서삼릉내 의령원(懿寧園) 바로 앞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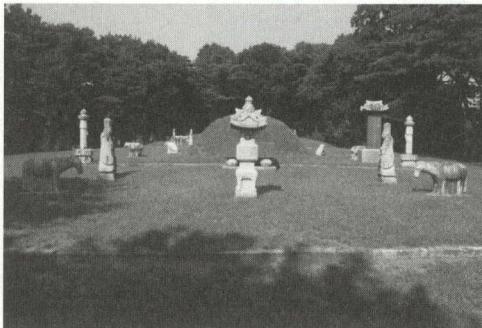
정자각 뒤 분릉에는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 마석(馬石) 1쌍, 양석(羊石) 1쌍, 호석(虎石) 1쌍이 배치되어 있으며, 묘소 좌측 아래에 신도비가 있다.



효창원 정자각

3. 원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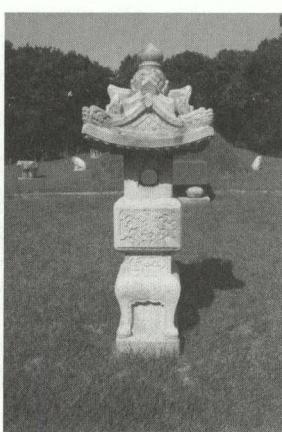
문효세자(文孝世子, 1782 ~ 1786)는 정조가 의빈 성씨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휘는 향(享),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1782년 9월 7일 새벽에 태어나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1786년 5월 11일에 5세로 요절한다. 그의 무덤인 효창원은 의빈 성씨, 영온옹주 무덤과 함께 현 효창



효창원 전경

공원 자리에 있었으며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이뤘으나 일제 강점기 때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되었다.

한편 의빈 성씨(宜嬪 成氏, 1753년 ~ 1786년)는 조선 정조의 후궁으로, 정조의 장남인 문효세자를 낳았다. 정조가 궁인들을 매우 불신해 멀리한 까닭인지 궁녀 출신 후궁은 의빈 성씨가 유일하다.



효창원 장명등

1753년 7월 22일 태어난 의빈 성씨의 아버지는 양반으로 생전 종2품 가선대부 벼슬까지 오른 증찬성 윤우이고, 어머니는 증정경부인 임씨이다. 정조의 후궁 화빈 윤씨의 처소 지밀 나인이었으나 정조의 눈에 들어 승은을 입고 내명부 정5품 상의(尙儀)로 승격됐다가 1782년(정조 6년) 9월 7일, 성씨가 왕자를 낳자 그 뒤, 왕자를 원자로 책봉하고 왕세자로 책봉했다. 1784년(정조 8년) 윤 3월 20일에는 의빈 성씨가 딸을 낳지만 그렇게 얻은 옹주

는 젓 돌을 넘기기도 전에 사망하고, 문효세자는 1786년 5월 11일에 흥서한다. 1786년(정조 10년) 9월 14일 의빈 성씨는 세 번째 출산을 한 달 앞둔 몸으로 요절한다. 학계에서는 의빈 성씨의 죽음이 효의왕후에 의한 독살이라는 의혹이 있다.

묘는 지금의 효창공원, 옛 효창원 자리에 있었으나 1944년에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일본의 의도로 서삼릉으로 강제 이장됐으며 정조의 다른 후궁 무덤에는 없는 어제비 등이 남아있다. 현재 원빈 흥씨의 무덤과 나란히 있다. 정조는 특별히 안국동에 의빈 성씨의 사당을 만들어 의빈궁이라 불렸고 이는 고종 때 칠궁에 속했으나 순종 때에 매장되었다.

4. 문효세자책봉죽책문

吳載純, 《醇庵集》卷3, 應製錄 文孝世子冊封竹冊文

篤生元良 荷宗祊錫羨之慶 早正儲位 遵國家鞏本之圖 爰稽舊章 庸舉顯冊
咨爾元子 睿諱聰睿日就 岐嶷天成 沖齡之德器異凡 旣挺美質 尺衣之周旋有度
不煩訓辭 嘉樹呈生花之祥 可占皇天之降佑 彌月叶流虹之節 尤驗聖祖之垂庥
肆致仁聞之夙彰 允宜封號之選舉 統緒之托斯在 亮予衷之庸嘉 臣隣之籲屢勤
亦輿情之可見 早喻思法於周代 政須蒙養之方 徵規式循於皇朝 誣緩
豫建之禮 兹命爾爲王世子 爾其誕膺遐福 懇闡丕猷 置師傅賓僚之官 僕導養
之咸正 犕詩書禮樂之教 佇就將之漸新 惟修身莫如親賢 惟明理莫如講學 孝
悌爲德行之首 實資孩提之良知 誠正作治平之基 宜勉精一之聖訓 夙興夜寐
勿替誥誠之言 海潤星輝 庶副神人之望

5. 문효세자시책문

李福源, 《雙溪遺稿》卷5, 冊文 文孝世子謚冊文

旻天不吊 奪我元良 靈辰有期 賜爾嘉謚 寔循彝典 少慰至情 惟爾世子 其生也祥 所托者重 仁孝溫文之德 自夫始步能言 碩厚凝遠之姿 必然大受遐到 符聖祖之誕月 靈長之景福已占 用明德之古規 愛戴之輿情夙係 晚舉故兩宮之喜采切 早建者三代之禮式遵 受寶冊於周甲昌辰 瑞暉叶星海之頌 講孝經於重陽舊節 英音聳賓僚之聽 見予輒欣 盖愛敬之天賦 於物無好 獨編簡之日親 朝野延頸之誠 咸日泰山磐石 日夕撫頂之祝 惟有松柏岡陵 何意无妄之痾遽纏不淑之痛 瘴憂遄復 既涓吉於呼嵩 醫技竟殫 奕傳哀於匝域 愉往事於涒灘 僅加二齡 泣諱辰於寢園 又屬此月 密邇玄隧之新卜 慘憺青邱之舊儀 斑衣在瞻 想音容之髣髴 甲觀如夢 凜宗國之孤危 蒙養燕謨 嗟萬事其已矣 節惠象德 惟二字爲庶幾 濟剛柔而成章 文以質美 自孩提而知愛 孝爲行源 爰命使臣奉冊 贈謚曰文孝 於戲 名既不浮 靈庶有格 默思大運之否泰 天理難諱 追述芳年之始終 予懷曷忍 昭垂簡策 永留不朽之光 幽贊神明 迓續無疆之曆

6. 문효세자애책문

金煜, 《竹下集》卷19, 哀冊文 文孝世子哀冊文

維丙午歲五月癸卯朔 十一日癸丑 文孝世子卒于昌慶宮之別堂 殯于瑤華堂 是年閏七月壬申朔 十九日庚寅 將遷于高陽栗木洞之原禮也 羽葆啓前 星斗正中 青鳥載卜 銅龍逐空 辭丹掖而逖違 就玄扃而永闕 匝千官兮雨泣 導百神兮雲衛 惟我主上殿下 情惟止慈 勵實由臆 悼离日之奄淪 念

震鬯之靡托 拝終事而曷慰 揭遺躅而將傳 爰命蘭臺 倍宣瑤鑄 其辭曰猗我列聖 德配上帝 維帝維佑 克昌厥世 賜茲元良 承爲冢嗣 先休叶時 物靈呈異 慶占流虹 祥符華棗 半夜喤喤 神光滿抱 克岐克嶷 天表日角 仁孝良能 溫文自得 甫及三歲 儼若成德 聖循輿請 進策春邸 丹幘玄袞 步采中禮 喜溢延頸 歡深繼體 繞膝怡愉 日侍殿宮 衣冕之臨 謾然笑容 履綦之旋 怒焉啼呼 百行之源 殆其性乎 嗜好在書 珍玩不易 未學語時 不捨方冊 遊嬉必是 手摩目寓 若有心契 痘猶不措 賓僚之接 克慎其儀 瞻視必端 穆如有思 沖齡受經 肅祖攸行 時維重陽 歲又同庚 雷肆聽講 百僚咸抃 德宇天成 睿思日闡 寔受景覩 宜壽宜福 艇我國本 期永千億 胡明兩之繼照 奕儲貳之告灾 朝嘻嘻而夕咷 杏雲輯而莫回 呴呼哀哉 囊擢無妄 邁獲勿藥 庭呼有期 廟告在即 俄二豎之復嬰 遽一曙之示懨 刀圭進而罔效 牝幣遍而無賴 回縕儀而舉訫 輟賀班而頌哀 風輪轉而電掣 孰所使而相催 呴呼哀哉 抢雲漢兮籲蒼旻 叩蓍蔡兮質黃神 旣周邸之毓靈 優湯降之不遲 若自天而申休 佞性命之無違 憑玄理而莫徵 繫誰咎而誰怨 書帷夕兮已闌 鷄寢曉兮誰問 呴呼哀哉 瞻彼瑤華 玄櫳載設 扇蓋在御 冊盈陳列 爐香藹兮唱臚 宛鶴駕兮斯格 穢素幣而撤祖 拝陳蹟於觸目 追末音於再呼 想孺慕於哀淚 顧羣情之若割 况宸痛之何既 呴呼哀哉 佳城有蕘 栗林之岡 雙闕孔邇 二墓入望 舢稜峩而迴接 松栢蔓而相向 倘幽顯之靡間 庶晨夕之無曠 呴呼哀哉 幽宅啓兆 靈馭戒紳 素衛外備 丹旐前發 銀漏盡兮月沈 玉宇寒兮露晞 仙遊邈兮上征 奕一逝兮無歸 呴呼哀哉 理固難齊 物本同原 盈有定 得喪無門 雖懿德之未章 尚令名之不騫 摠遺範於五齡 寫至哀於一篇 徵宸翰而紀實 庶垂曜於永年 呴呼哀哉

7. 문효세자지문

金鍾秀, 《夢梧集》卷7, 墓誌 文孝世子誌文

世子姓李 謂曰 今王殿下之長子 英宗大王之曾孫也 我殿下以莊獻世子之子 爲伯父孝章世子後 追尊孝章世子爲真宗大王 英宗大王命也 宜嬪成氏 以壬寅九月七日寅時誕世子于昌德宮之謙華堂 是夜 忽有一道紅光照寢 如出日 比曉世子誕焉 英宗大王暨我殿下聖節 皆是月也 初慶熙宮庭中 有大棗樹 元宗太子在潛邸時繫馬云 其後樹枯 及顯宗大王辛丑 樹忽開花 而肅宗大王以是秋誕降 其後樹又枯 至是又花 實既熟 上頒之近臣 聞者異之 同年十一月 封元子 上命王妃殿下 取而子之 甲辰八月 冊爲王世子 英宗大王登極之年月甲子適一周矣 乙巳重陽 始講孝經于恭默閣 肅宗大王始講孝經之年月日再周甲也 丙午五月 患紅疹 旣平復 旋添膈痞 十一日未時 薦逝于昌慶宮之別堂 春秋甫五歲 我殿下親泣終事 事無纖巨一以禮 衣衾內出 不煩有司 議政府取剛柔相濟 慈惠愛親二法 上謚曰文孝廟號曰文禧 墓號曰孝昌 閏七月十九日 禮葬于高陽栗木洞壬坐原 上以玄室之誌 命臣鍾秀 旣又書下御製錄紙 傧資撰述 臣上疏請遵仁顯王后明陵故事 以御錄作爲誌文 不許則謹就御錄 參以一二見聞 稽首流涕而叙之 世子儀表豐盈 器宇宏朗 慈良寬裕 仁心外形 望之嶷嶷然淵淵然 恒若有所思念計度者 動止有度 接賓僚 未嘗遊目 嘗夜室中偶失火 侍者皆睡 聞世子呼而覺 火不遂燃 時世子生未瞑矣 及行冊禮 方其受冊于庭 而陞堂受賀也 端坐不抱扶於人 禮畢 上命諸臣近前仰瞻 諸臣一時陞陞 四面簇擁 而世子注眸周視 弗遺遠曲 上笑曰 是兒也 見生面人不羞澁 異哉 諸臣相顧噴噴曰 真天人也 世子生而育於惠慶宮邸下 嬉戲率不離膝下 每上入 世子迎必以笑 及玉趾出戶 則呱泣而索之 疾旣殆 神識已離矣 忽大聲

呼殿下者再 于時上方御夾室也 翼日 上臨視則遽欠伸 開睫泣數行下 已而屬纊 至性之終身不少變也如此 未學語 已知愛好書籍 室中有書字屏張坐臥顧眄 不令須臾去側 幼多疾恙 雖牀褥中 不見有痛楚之色 或值啼號不寧之時 則左右不以奇玩以書卷 進周興嗣千字文 編條爲之垢弊 及疾欲試取書卷對展 則潛心諦視 若有領會者 始我殿下春秋鼎盛 而未有儲嗣國人憂之 及世子誕生 卽婦孺下賤無不歡欣踴躍 民心之維係 盖已在名位不定之先矣 又其生質之卓異 休徵之萃輶 有可以承精一之傳 撫熙洽之運者 皇天之眷顧我邦家 若有不偶然者 而奈之何不吊 一朝降割 遂致儲位空虛 七鬯無主 嘴呼此何理也 臣竊伏惟念 世子睿質雖天縱 而方在冲齡起居食息不離乎姆保之手 德美之外見者 盖尠矣 雖然 御錄六百有餘言以我聖上辭令文章之動合典謨 而得之於顧復之間過庭之際者 可比惇史天質之剛柔合度 卿大夫之所瞻望而知之者也 愛親之根於天性 嗜書之殆同良知 宮中人之所傳頌而稱之者也 後千百代 觀於御製一通謚法八字 尚可徵其爲我聖上之肖子矣 嘴呼 豈不盛矣乎哉